

한·일 은행연합회 컨퍼런스

\* 한-일 동시통역 진행

# 축사

2023. 10. 3.(화) 15:00

일본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한·일 은행연합회 공동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 12년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는 새로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이외에 경제,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를 넘어 민간 차원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금융 분야에서 말형 격인 은행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해주시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주신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해주신  
카토 마사히코 일본 은행협회장님과  
김광수 한국 은행연합회장님,  
양국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지속가능금융과 디지털금융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과 기후변화, 사회양극화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금융산업은 "지속가능금융"과 "디지털금융"이라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이 종래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 빈곤해소, 지배구조 개선 같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발표 등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지속가능금융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 AI,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금융과 비금융 산업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향후 금융산업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이버 리스크, 디지털 뱅크런 같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오늘 세미나를 기회로 양국간에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 **3 한-일 금융협력의 중요성 및 마무리 말씀**

---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찾는 것은 개인간에, 국가간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  
상호 협력을 통해, 다가올 Asia 시대에 함께,  
인류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오전 일본 금융청장님과의 면담에서  
지속가능금융 및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것과,

한국 은행연합회와 일본 은행협회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은,  
향후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보험, 핀테크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三人寄れば文殊の知恵\* (さんにんよればもんじゅのちえ)  
“산닌 요레바 몬쥬노 치에”

\*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과 같은 좋은 지혜가 나온다

1명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좋은 지혜가 나온다는 속담으로  
제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